

28~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서 회동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석좌 교수가 책이 나온 직후 숨을 거뒀다.

“마티(펠드스타인 교수 애칭)는 내가 재무장관이었던 1980년대 후반 이후 30년 이상 특별히 가까이 지낸 학자다. 사실은 올 3월 26일에 세계경제연구원에서 조찬강의를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상 이유로 여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연락이 왔는데.... 정말 슬픈일이다. 마티는 동료 미국 경제학자들로부터, 가장 존경 받고 신뢰를 받아온 석학 중 석학이었다.”

책을 보니 펠드스타인과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시각이 상당히 다르다.

“서머스가 걱정하는 장기 침체를 펠드스타인은 크게 걱정 않는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펠드스타인은 서머스보다 훨씬 매파적이다.”

펠드스타인과의 대담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거시경제 통계나 생산성 지표 등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 소비자의 복지나 물가, 생산성 통계가 변화를 충분히 반영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국제기구장과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정말 말조심 하는데 어떻게 언론보도용 대담에 응했나.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마리오 Дра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는 아주 민감한 시기여서 참모들의 강한 반대에도 나를 믿고 대화에 응했다. 오랜 기간 서로 쌓은 신뢰 덕분이다.”